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정진민 | 명지대학교

세대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유권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출생년도에 기초하여 1960년 이전에 태어난 민주화 이전세대, 196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또는 386)세대, 197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 이후세대, 그리고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등 상이한 성장경험을 갖고 있는 4개의 연령집단으로 세대를 구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 유권자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유권자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크게 작용하여 왔던 지역주의와 이념에 의한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로짓분석 결과는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나 이념보다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현정부나 집권당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한국 주요정당들이 그동안 주로 지역주의와 이념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해 왔고, 변화된 투표행태를 보이는 유권자들이 앞으로 한국 유권자 집단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미래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

주제어: 세대, 2010년 지방선거, 투표행태, 지역주의, 이념

I. 서론

민주화 이후, 한국의 유권자들은 기존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출신 지역에 기초한 지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왔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념의 영향력 또한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많은 선거연구들은 지역과 이념이라는 두 가지의 핵심 변수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설명해 온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2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2호(2012)

존의 이러한 선거연구와는 달리, 젊은 세대 유권자일수록 지역뿐 아니라 이념적인 틀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둘러싸고 보다 타산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유권자들의 이념에 따른 투표가 지나치게 짧은 기간 내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젊은 세대가 2002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내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고, 2004년 총선에서도 역시 보다 진보적인 열린우리당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이후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명박 후보가 바로 이러한 같은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4개월 뒤에 치러진 2008년 총선에서 역시 이러한 젊은 세대는 보다 보수적인 한나라당에 지지를 보냈다는 것인데, 이는 지속성(durability)이라는 이념성향의 특징을 고려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이들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냈고, 이에 힘입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불과 2~3년 사이에 이들의 이념적 성향이 또 다시 보수에서 진보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젊은 세대의 투표행태를 지역주의 뿐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과 연관 지어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젊은 세대가 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기성 세대에 비해서 오히려 덜 이념적이고 또는 더욱더 실용적이어서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쟁점을 둘러싸고 보다 더 타산적인 선택을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과,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경우, 이들의 이념적인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어서라기보다, 오히려 덜 이념적이고 더욱 타산적인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결과로서 이명박 후보 및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이념성향이 다시 보수적인 것에서 진보적인 것으로 바뀌어서라기보다, 이들의 실용적이고 타산적인 성향이 이명박 정부의 실적과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대거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젊은 세대들이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논의되어 왔던 지역이나 이념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실용적이고 타산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기존 연구의 검토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세대(generation) 개념은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 환경이 가치정향을 형성하는 20세 전후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형성시기(formative period)를 거친 후에는 이 때 갖게 된 가치정향과 태도가 그다지 잘 바뀌지 않는다는 만하임(Mannheim 1952) 등 세대론자들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¹⁾ 형성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의 영향력을 중요시하는 세대론자들은 대체로 사회가 빠르게 변하여 각기 상이한 환경에서 성장한 다양한 연령집단들이 존재할 때, 세대 요인의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의 우리 사회는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심대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그 결과 각 연령집단이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형성시기에 경험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상이했고, 따라서 한국 사회는 세대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본다(정진민 1992, 1994; Chung 1996).

기성세대 유권자들이 경제적, 물질적 안정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자율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반하여, 이들과 크게 구별되는 연령집단적 경험을 지닌 젊은 세대 유권자들은 이런 종류의 안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구미의 전후세대 유권자들처럼 자아표현과 삶의 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 순위를 둔다. 즉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형성시기를 보낸 기성세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환경은 흔히 자아표현과 삶의 질을 강조하는,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0) 등이 말하는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 가치의 강화를 가져온다. 실제로 1990~1993년에 걸쳐 실시된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한 잉글하트(1997)의 경험적인 연구는 한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세대간의 가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변화는 대체로 탈물질주의 가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지역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젊은 세대 유권자들에게 있어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 젊은 세대의 보다 큰

1) 여기에서 사용되는 세대 개념은 Mannheim(1952), Hyman(1959), Ryder(1965), Keniston(1969, 1970), Lambert(1972), Abramson(1975), Rintala(1979) 등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 것이다.

관심사는 가족, 직장, 여가 생활에서의 만족감 및 자기계발과 같은 개인중심의 실용주의적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개인중심의 실용주의적 특성은 탈근대화에 따라 집단소속감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교육 수준의 현저한 향상으로 인하여 기성세대에 비해 인식능력 및 정보처리능력이 크게 신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정보접근이 크게 용이해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즉,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들에 있어서는 지역이나 이념을 활용하는 외부로부터의 동원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보다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가능해지는 소위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²⁾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들의 실용적이고 타산적인 경향성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매일 매일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실질적인 쟁점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에 한층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요컨대 한국의 세대간 가치관 변화는 매우 현저할 뿐 아니라 한국 유권자 집단의 세대별 구성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앞으로 유권자들의 세대별 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바뀌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태도 및 행태가 변화하고 나아가서 정당의 지지기반, 지지동원 방식, 조직형태 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³⁾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 주지하다시피 지역주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활용되어 왔으며, 2002년 대선을 기점으로 이념과 세대가 중요한 변수로서 뚜렷하게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요인의 절대적 영향력에 밀려

2) 인지적 동원 현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달톤(1984, 2002)을 참조할 것. 인지적 동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치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유권자 스스로 자급자족적(self-sufficient)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구미의 정치행태 연구에서도 세대 개념은 1970년대 이후 선진 산업사회가 탈산업사회화하면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가치정향 및 유권자들의 정치행태의 변화, 이에 따른 기존 정당들의 지지기반 변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중요한 분석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Abramson and Inglehart 1992; Craig and Bennett 1997; Dalton 1988; Erikson and Tedin 1995; Flanagan 1987; Inglehart 1977, 1990, 1997; Inglehart and Welzel 2005; Ladd 1989; Miller and Shanks 1996; Norpoth 1987). 특히 잉글하트 및 달톤 등은 선진 산업사회에 있어서 세대에 기초한 가치정향의 차이가 정당지지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으로써 계급 및 종교 등 전통적으로 중요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통시적(diachronic)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한동안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논의되었으나, 2002년에 실시된 16대 대선 이후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좀 더 뚜렷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강원택 2002; 김욱 2006; 안순철 2002). 예를 들어, 강원택(2002)은 16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한 결과, 세대 및 이념요인이 지역주의 요인과 결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안순철(2002) 역시 민주화 이후 16대 총선까지 이념요인이 지역주의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 진일보하여, 최준영·조진만(2005)은 16대, 17대 총선에서 동일한 지역 내에서 발견되는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을 검증함으로써, 기존의 지역균열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갑윤(2008)과 서현진(2008)은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이갑윤·이현우(2008) 또한 17대 총선에서 정당지지도 경로 분석을 통해 세대변수가 지역주의 변수와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념변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지역주의, 이념 외에 세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세대요인을 연구하는 기존 문헌들의 대부분은 연령효과(aging effect)와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세대효과의 개념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에서조차, 세대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각 세대가 갖고 있는 상이한 성장경험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단순히 자연연령을 중심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있다. 적어도 세대효과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치정향이 만들어지는 형성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성시기에 각 연령집단이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세대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경우, 빠른 속도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연령집단별 성장경험에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사회현상, 정치현상을 분석할 때 세대효과의 개념이 유용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장시기의 구분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출생년도에 기초한 출생집단(birth cohort)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대 개념을 활용한 기존의 연구 중에서 2010년 지방선거의 세대효과를 다룬 이내영(2010)은 세대를 단순히 10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 세대효과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강원택(2009)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투표행태를 다루고 있는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비교적 충실하게 세대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즉, 출생년도를 중심으로 하여 386 이전, 386, 386 이후라는 세 개의 세대구

획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택은 세대를 이념적인 틀 속에서 논의하고 있고, 386세대는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더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다만,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는 이들의 진보적인 성향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슈가 부재하여, 그러한 이념적 성향이 투표행태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강원택의 분석에 따르면, 언제든지 이들의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제기된다면, 진보적인 투표행태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세대별 이념적 성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념적인 틀 속에서 세대를 논의하기 보다는 젊은 세대일수록, 특히 민주화 이후의 세대 중에서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이념적인 틀에 덜 얽매이고 있다고 본다. 즉, 이들 신세대는 이념보다는 실생활과 관련하여 보다 더 타산적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 신세대는 민주화 이후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지배하여 왔던 지역주의의 틀로부터도 훨씬 자유로워져 있다고 본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이처럼 신세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지역주의나 이념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이들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학등록금, 취업, 물가 등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과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평가에 토대하여 투표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세대효과를 지역주의뿐 아니라 이념과도 분리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I. 연구의 설계 및 변수

1. 연구의 설계

본 논문은 민주화 이후에 형성시기를 보낸 젊은 세대 가운데, 1970년대에 출생한 연령집단과 1980년대에 출생한 연령집단 사이에 상당한 가치정향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이 두 세대를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유권자 집단을 네 개의 세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1960년 이전에 출생한 *민주화 이전 세대*, 1960년대에 출생하여 민주화 와중에 형성시기를 보낸 *민주화 세대* 혹은 *386세대*, 1970년대에 출생하여 민주화 이후의 보다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형성시기를 보낸 *민주화 이후 세대*, 1980년대에 출생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진 환경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급

격한 발전으로 인하여 디지털 시대에, 그리고 해외여행이 일상화 된 글로벌 시대에 형성시기를 보낸 신세대 등 네 개의 세대로 구획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 출생한 두 젊은 세대인 민주화 이후 세대와 신세대의 달라진 가치정향과 정치행태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1970년대에 출생한 민주화 이후 세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기에 출생했지만, 그들의 형성시기에 I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불황 등을 경험한 바 있다. 즉, 사회에 진출할 시기에 외환위기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을 경험한 이들 민주화 이후 세대는 민주화 운동의 와중에 형성시기를 보낸 민주화 세대와 비교하여 훨씬 더 현실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들 1970년대에 출생한 민주화 이후 세대가 정치적인 관심이 높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진보적 성향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데일리 포커스 2012/3/12), 이들의 현실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동시에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스타일을 동경하면서 이를 추구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동아일보 2011/11/29). 또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매체환경의 급격한 전환기에 형성시기를 보내면서, 새롭게 도래한 디지털 시대에 적응해야 했던 세대이기도 하다.

이에 반하여, 베이비부머 세대를 부모로 하여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붉은 악마, 그리고 디지털 세대로 특징화 된다.⁴⁾ 이들 신세대는 이미 디지털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 성장한 첫 번째 세대로서, 매우 감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의 형성시기에 본격적으로 도래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로의 여행 및 교류가 활발해졌고, 이들의 해외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사회적인 인식을 함에 있어서 이들이 국제적인 준거에 의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중앙선데이 2009/3/15). 이들 신세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한 탈냉전시대에 성장함으로써 기성세대보다 탈이념적인 성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역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현실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이들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실생활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 되고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진 환경 속에서 성장하거나 태어난 민주화 이후 세대 및 신세대 등 이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4) 1980년대에 출생한 이러한 신세대는 뛰어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독해능력)’을 갖추고 있다(중앙선데이 2009년 3월 15일자, “창간 2주년 스페셜 리포트: 대한민국 20대를 말하다”)

적인 성향이 크게 강화된 세대라는 점에서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거, 동성애, 이종국적 등의 문제에 있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관용적인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인 성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젊은 세대는 특정 정당을 꾸준히 지지할 경향성이 강한 기성세대와는 달리, 선거 때마다, 또 정책마다 지지정당이 달라질 수 있는 일종의 떠도는(floating) 세대 또는 유목(nomad) 세대라고도 볼 수 있다(중앙선데이 2009/3/15; 김나경 2011).

즉,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가 지역과 이념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지역주의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뿐 아니라, 탈 이념적인 경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이들 젊은 세대의 탈 지역적, 탈 이념적 성향이 증가됨에 따라, 투표 선택에 있어서도 취업, 교육, 주거와 같은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현 정부나 집권당의 실적이 나쁘면 이에 대해 심판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표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에 있어 세대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 실제로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나 이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동일한 출신지역 및 이념집단 내에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세대별 투표율 차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다. 이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역이나 이념 등의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한계효과 또한 제시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투표결정이 세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2. 데이터 및 변수의 조작화

본 연구는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실시한 「2010년 지방선거 패널조사 전국 1차, 2차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1차조사 기간은 2010년 5월 4일에서 5월 6일, 2차조사 기간은 2010년 6월 3일에서 6월 6일이다.

이어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를 조작화 한다. 먼저 종속변수 Y 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 여부이며, 본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 1의 값을, 그 외의 정당에 지지를 표현한 경우에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무응답은 결측 처리하였다.⁵⁾

5) 본 논문에서는 종속변수로 2010년 지방선거 중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한나라당에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세대* 변수는, 응답자의 연령을 질문한 문항을 통해 출생년도를 중심으로 재정리한 후, 가장 젊은 신세대=1, 민주화 이후 세대=2, 민주화 세대=3, 그리고 가장 나이 든 세대인 민주화 이전 세대=4로 값을 부여하여 조작화 한다. 둘째,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지역인 *영남* 변수이다. 영남 출신 유권자의 경우 1의 값을, 그 외의 지역 출신 유권자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였다.⁶⁾ 셋째, *이념* 변수는 유권자의 자기 이념 평가점수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가장 진보적인 0점부터 가장 보수적인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조작화 하였다. 넷째, *정책에 대한 평가* 변수로서, 현 정부에서 주된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종시, 천안함 사건, 그리고 4대강에 대한 유권자들의 찬성 및 반대의 응답을 계산하여, 이들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0점부터, 전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3점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다섯째, *경제에 대한 평가*로서, 특히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좋아졌다고 한 평가부터 매우 나빠졌다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1에서 5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정부 심판* 변수이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가 현 정부를 심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의 문항을 통해 조작화 하였다. 정부심판의 의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1점부터, 매우 그렇다고 평가하는 4점까지의 값을 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교육수준 정도를 조작화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젊은 세대일수록 평균적으로 보다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응답자의 교육수준은 통제변수로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세대, 지역, 이념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을 설계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 여부*라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이므로, 본 연구는 아래위 같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모형을 제시한다.

대한 투표여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가 가급적 후보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당에 대한 투표여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6) 경험적 분석의 결과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있어 거주지보다 고향이 더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다수 지적되어 왔다(이갑윤 1997; 강원택 2008). 이에 본 연구는 지역변수를 조작화 함에 있어 ‘출신지역’을 그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begin{aligned} & \text{Logit}(p: Y=\text{한나라당 투표}) \\ & = \beta_0 + \beta_1 * \text{세대} + \beta_2 * \text{영남} + \beta_3 * \text{이념} + \beta_4 * \text{정책평가} + \beta_5 * \text{국가경제상황} + \beta_6 * \text{정부심판} \\ & \quad + \beta_7 * \text{교육수준} + \varepsilon \end{aligned}$$

여기에서 각 $\beta_k(k=0, 1, 2, 3, \dots, 7)$ 는 회귀계수(coefficient)로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투표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ε 는 오차(error)이다. 다음 장에서, 위의 모델에 대한 분석의 결과와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분석의 결과 및 해석

1. 분석의 결과

먼저,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가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의 <표 1>이 보여주듯이, 각 세대별로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율에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전 세대의 경우, 한나라당에 대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민주화세대 및 민주화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신세대 유권자 중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14.9%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표 2>는 출신지역에 따른 정당선택을 하는 비율이 세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전체 영남출신 유권자 중 한나라당에 투표한 비율과,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영남출신 유권자 중 한나라당에 투표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에 참

<표 1> 세대별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투표(%)

	신세대	민주화 이후 세대	민주화 세대	민주화 이전 세대	전체 유권자
한나라당	14.9	30.5	31.3	57.3	38.7
비 한나라당	85.1	69.5	68.7	42.7	61.3
N	121	167	201	307	796

$\chi^2=83.14, p<0.001$

<표 2> 영남출신 유권자 중 한나라당 투표율(%)

	한나라당에 투표/ 전체 영남출신 유권자	한나라당에 투표/ 투표 참여한 영남출신 유권자
신세대	10.0	18.9
민주화 이후 세대	26.6	41.2
민주화 세대	33.0	45.6
민주화 이전 세대	53.2	75.8
평균	34.9	52.5
N	384	255

<표 3> 보수이념 유권자 중 한나라당 투표율(%)

	한나라당에 투표/ 전체 보수이념 유권자	한나라당에 투표/ 투표 참여한 보수이념 유권자
신세대	18.18	27.27
민주화 이후 세대	46.97	56.36
민주화 세대	43.66	45.59
민주화 이전 세대	64.83	67.63
평균	51.43	57.04
N	315	284

여한 영남출신 유권자 중, 한나라당에 투표한 비율은 민주화 이전 세대의 경우 매우 높아 75.8%에 달하고 있지만, 민주화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의 경우에는 각각 45.6% 및 41.2%로 과반에 못 미치고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세대의 경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영남출신 유권자 중 한나라당에 투표한 비율은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영남출신 신세대 유권자의 한나라당 투표율은 전체 영남출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10%라는 매우 저조한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서 제시한 <표 3>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유권자 중 한나라당에 투표한 비율을 각 세대별로 분류하여 나타낸 것이다. 나이드는 세대일수록 보수 이념의 유권자 중에서 한나라당에 투표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영남지역출신 유권자들의 세대별 한나라당 투표율을 나타낸 <표 2>와, 보수이념을 가진 유권자들의 세대별 한나라당 투표율을 적시하고 있는 <표 3>를 비교하여 보면, 전체 영남출신 유권자 중 한나라당 투표비율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보수이념을 가

지고 있는 유권자 중 한나라당 투표비율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 민주화 세대와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다). 이념에 따른 투표행태가 민주화 이후 세대에서 신세대로 바뀌면서 크게 줄고 있음이 흥미롭다. 즉,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세대가 젊어질수록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념에 따른 투표행태는 민주화 이후 세대와 신세대 사이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본 연구에서 세대를 구획할 때, 민주화 이후에 출생한 유권자들을 1970년대에 출생한 민주화 이후 세대와,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로 구분하였던 것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지금까지, 동일한 출신지역 및 동일한 이념집단 내에서, 세대별로 집권당에 대한 투표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세대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이념 및 지역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념 및 지역변수 이외에, 통제변수로 정책평가, 경제평가, 정부심판, 교육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4>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각 변수들이 지니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계수값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세대($p < 0.05$)변수는 지역과 이념 등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집권당에 대한 투표를 결정짓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한나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영남($p < 0.05$) 출신 유권자의 경우, 타 지역 출신 유권자보다 한나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보수적 이념($p < 0.05$)을 지닌 유권자일수록 한나라당에 투표했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수행($p < 0.01$)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일수록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가 이번 2010년 지방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심판($p < 0.01$)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수록 집권당 외의 다른 정당에 투표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평가 및 정부심판이라는 이러한 정치적 변수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경제평가 및 교육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평가 변수의 경우, 통합모형에서 세대, 이념, 지역 변수의 영향력을

〈표 4〉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투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본모형	세대모형	지역모형	이념모형	통합모형
세대		0.29** (0.12)			0.28** (0.12)
영남출신			0.55** (0.25)		0.69** (0.26)
이념				0.19*** (0.06)	0.18** (0.07)
정책 평가	-1.18*** (0.14)	-1.10*** (0.14)	-1.19*** (0.14)	-1.15*** (0.14)	-1.09*** (0.15)
경제 평가	-0.27* (0.14)	-0.24* (0.15)	-0.22 (0.15)	-0.24* (0.15)	-0.17 (0.15)
정부 심판	-0.94*** (0.15)	-0.94*** (0.15)	-0.91*** (0.15)	-0.85*** (0.15)	-0.83*** (0.16)
교육	-0.04 (0.12)	0.04 (0.12)	-0.02 (0.12)	-0.06 (0.12)	0.33 (0.12)
상수	5.17*** (0.66)	3.88*** (0.83)	4.75*** (0.68)	3.82*** (0.78)	2.16** (0.94)
N	566	566	564	563	561
Pseudo R ²	0.4024	0.4102	0.4091	0.4128	0.4277

* p<0.10, ** p<0.05, *** p<0.01

통제하였을 때, 유권자가 국가경제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집권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 투표했던 경향성이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잃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항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설계한 것인데, 이러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종속변수의 변화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계수값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경우 계수값들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계수값의 방향, 상대적 크기, 그리고 통계적 유의성의 차원에서만 해석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확률로 계산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해야 하는데, 가능한 여러 방법 중,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통한 해석의 유용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효과는 모델의 직접적 함의를 전달하는 데 보다 유용한 도구가 되므로, 이러한 비선형회귀분석모형의 결과를 보고할 때 계수값들에 부가적으로 이 한계효과를 명시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박원호 2012, 35). 한계효과

〈표 5〉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투표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효과

	기본모형	세대모형	지역모형	이념모형	통합모형
세대		0.07** (0.03)			0.06** (0.03)
영남출신			0.13** (0.06)		0.16** (0.06)
이념				0.04*** (0.01)	0.04** (0.01)
정책 평가	-0.27*** (0.03)	-0.25*** (0.03)	-0.27*** (0.03)	-0.26*** (0.03)	-0.25*** (0.03)
경제 평가	-0.06* (0.03)	-0.06* (0.03)	-0.05 (0.03)	-0.06* (0.03)	-0.04 (0.03)
정부 심판	-0.22*** (0.03)	-0.22*** (0.03)	-0.21*** (0.03)	-0.19*** (0.03)	-0.19*** (0.04)
교육	-0.01 (0.02)	0.01 (0.03)	-0.01 (0.02)	-0.01 (0.03)	0.01 (0.03)

* p<0.10, ** p<0.05, *** p<0.01

란, 다른 모든 독립변수들을 평균(mean)에 고정했을 때, 각 독립변수의 예측확률의 변화량을 의미한다(Long 1997). <표 5>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각각의 평균에 고정시킨 후, 각 변수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투표 여부에 미치는 각 독립변수의 한계효과를 통해 본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한다. 먼저 세대(p<0.05) 변수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모두 각각의 평균에 고정했을 때, 세대가 한 단위씩 변할 때마다 한나라당에 투표할 확률이 6%씩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남(p<0.05)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의 평균값에서 영남 이외 지역 출신의 유권자에 비해 영남출신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에 투표할 확률이 16% 높게 나타났다. 이념(p<0.05) 변수는 다른 변수들이 모두 평균에 고정되었을 때, 유권자의 이념이 한 단계씩 보수화 될수록 한나라당에 투표할 비율이 4%씩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변수인 정책 평가와 정부심판 변수의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른 변수들이 모두 평균에 고정된 상태에서, 현 정부의 정책(p<0.01)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한 단계씩 증가할수록, 한나라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은 25%씩 감소하고 있음

이 확인된다.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가 현 정부에 대한 심판($p < 0.01$)의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한 단계씩 증가할수록, 유권자가 한나라당에 투표할 확률은 19%씩 감소하였다.

2.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세대의 영향력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민주화 이후에 형성시기를 보낸 젊은 세대의 경우, 오랫동안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지배해 왔던 지역주의나 이념의 영향을 덜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및 그 한계효과는, 실제로 젊은 세대일수록 한나라당에 대해 투표할 확률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가 젊은 세대일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출신지역이나 이념에 따른 투표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출신지역이나 이념을 대체하여 어떤 요인들이 집권당에 대한 젊은 세대의 투표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까? 앞서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했듯이, 젊은 세대에게 보다 타산적인 경향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문제들에 있어 현 정부나 집권당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젊은 세대에게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행태가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는 유권자들 중,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않은 비율이 세대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다음의 <표 6>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6>에서 보여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집권당인 한나라당에게 투표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신세대 유권자들의 경우, 전체 평균인

<표 6>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유권자 중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비율(%)

	한나라당 투표 안함/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
신세대	92.52
민주화 이후 세대	85.22
민주화 세대	86.99
민주화 이전 세대	81.08
평균	86.40
N	456

86.40%를 상회하는, 95.52%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게 투표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주의 및 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이들 젊은 세대는 지역 및 이념에 얽매어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특히 이념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에 있어서 더욱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의 광역비례 투표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의 유권자일수록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이 지역주의와 이념의 영향력을 덜 받고 있는 대신, 이론적 검토에서 논의했던 이들의 타산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 정부나 집권당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실제로 이들 젊은 세대가 현 정부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투표선택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유권자들 중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주화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젊은 세대의 실적평가에 기초한 투표선택이 더욱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민주화 이후 지난 4반세기 동안 한국의 주요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하기 위하여 지역주의를 주로 활용하여 왔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념을 또 다른 유권자 지지의 동원수단으로 활용하여 온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당들의 동원방식이 향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미의 기성세대 유권자 집단이 계급이나 종교에 따라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또는 정당충성심(*party loyalty*)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한국의 기성세대 유권자들에게는 출신 지역이나 이념이 정당충성심을 확립하는 데 크게 작용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지역주의나 이념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그보다는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쟁점과 삶의 질에 더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 유권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역주의나 이념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해 온 기존 정당들은 지역주의나 이념에 따라 고착화 된 정치적 성향이 약화되어 있는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해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정치 일반에 대한 무관심이 폭넓게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과 무관심의 확산은 최근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및 선거 직전까지도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부동

층 유권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V.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일수록 그동안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지배해 왔던 지역주의나, 2000년대 들어와 비중이 커진 이념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보다는, 점차 현 정부나 집권당의 정책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념요인과 관련해서는, 세대별 이념적 성향에 차이가 있어 세대와 이념변수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민주화 이후 세대, 그중에서도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이전 세대와의 성장경험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실용적이고 타산적인 경향성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이념적인 틀 속에서만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젊은 세대 유권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행태의 변화는, 이들 젊은 세대가 미래의 한국 유권자들의 중추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정치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질 것으로 본다.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의 이러한 투표행태의 변화는 이들이 지역과 이념의 영향력을 덜 받고 있어, 앞으로도 물가, 주거, 교육, 취업 등 구체적인 실생활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현 정부 또는 집권당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토대한 투표선택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권당이 어느 당이든, 그 정당의 실적에 따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당의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집권당의 민생문제 관련 실적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지역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젊은 유권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1980년대에 출생한 신세대 유권자들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한국 유권자들의 주축을 이루게 될 이러한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행태변화를 고려한다면, 한국의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들도 지역이나 이념을 활용한 유권자의 동원방식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당이나 정치 엘리트들 역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이 갈수록 정당들 간에 점점 더 유동화 되고 있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정책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해 볼 수 있다. 만약, 유권자들의 이러

한 변화에 대해 정치권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게 된다면, 투표율의 저하 및 반 정당(anti-party) 정서의 확산 등, 선거나 정당 등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퇴행적인 경로를 걷게 될 우려도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한국 유권자집단의 중추를 형성하게 될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달라진 가치 정향 및 향상된 정치적 의식수준 등으로 인하여, 지역이나 이념에 따라 고착화 된 기존의 정치가 새로운 정치로 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2년 4월 15일

심사일: 2012년 5월 16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중첩?”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99-132.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_____. 2009. “386 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9-97.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김나경. 2011. 『2011년 대한민국 20대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서울: LG경제연구원.
- 김욱.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75-107. 서울: 오름.
- 박원호. 2012. 『로짓과 프로빗 모델의 추정과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상담실.
- 서현진. 2008. “17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참여와 세대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14권 2호, 117-142.
- 안순철. 2002. “16대 총선의 이데올로기적 예측공간 분석.”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제16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59-97.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이갑윤. 1997.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_____. 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14권 2호, 93-115.
- 이갑윤 ·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

- 구』창간호, 137-167.
- 이내영. 2010. “6·2 지방선거와 세대균열의 부활.”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179-200.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정진민. 1992.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요인.” 『한국정치학회보』 26집 1호, 145-167.
- _____. 1994. “정치세대와 14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257-274.
- 최준영·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념과 세대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 Abramson, Paul. 1975. *Generational Change in American Politics*. Lexington: Lexington Books.
- Abramson, Paul and Ronald Inglehart. 1992.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Value Change in Eight West European Societ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2, 183-228.
- Chung, Jin Min 1996. “A Generational Analysis of the 199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2, 145-164.
- Craig, Stephen and Stephen Bennett, eds. 1997. *After the Boom: The Politics of Generation X*. Lanham: Rowman.
- Dalton, Russell. 1984. “Cognitive Mobilization and Partisan Dealignment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Journal of Politics* 46, 264-284.
- _____. 1988.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Chatham House.
- _____. 2002.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3rd ed. New York: Seven Bridge Press.
- Erikson, Robert and Kent Tedin. 1995. *American Public Opinion*, 5th ed. Boston: Allen and Bacon.
- Flanagan, Scott. 1987. “Value Change in Industrial Socie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1303-1318.
- Hyman, Herbert. 1959.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Free Press.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iston, Kenneth. 1969. “Moral Development, Youthful Activism and Modern Society.” *Youth*

- and Society* 1, 110-127.
- _____. 1970. "Youth: A New Stage of Life." *American Scholar* 39, 631-654.
- Lambert, Allen. 1972. "Generations and Change: Toward a Theory of Generations as a Force in Historical Process." *Youth and Society* 4, 21-45.
- Ladd, Everett. 1989. "The 1988 Elections: Continuation of the Post-New Deal System."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04, 1-18.
- Long, J. Scott. 1997.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 Press.
- Miller, Warren and J. Merrill Shanks.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orpoth, Helmut. 1987. "Under Way and Here to Stay: Party Realignment in the 1980s." *Public Opinion Quarterly* 51, 376-391.
- Rintala, Marvin. 1979. *The Constitution of Silence: Essays on Generational Themes*. Westport: Greenwood.

ABSTRACT

Korean Voting Behavior and Generation in the 2010 Local Elections

Jin Min Chung | Myong Ji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 in the 2010 local elections, focusing on generational factor. The Korean electorate in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age cohorts based on birth years with distinctive formative experiences, that is, Pre-Democratization generation born before 1960, Democratization (or 386) generation born in the 1960s, Post-Democratization generation born in the 1970s, and New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voters of younger generations, particularly voters belonging to the New generation, are significantly less influenced by ideology and regionalism which have long been major factors affecting vote decisions of Korean voter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stead, the results of logit analysis showing younger generations' remarkable decline of support for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suggest that the Korean voters of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make vote decis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or the ruling party in concrete policy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The behavioral change of younger generations found in this article can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Korean politics in that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long mobilized voters by exploiting regionalism and ideology and younger generations with changed patterns of voting behavior will become the backbone of the Korean electorate in the years to come.

Keywords: generation, 2010 local elections, voting behavior, regionalism, ideology